

전북 선수단, 추석 연휴 반납 '구슬땀'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막판 훈련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전북 선수단은 추석 명절도 잊은 채 훈련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20일 남은 전국체전에서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테니스와 양궁, 자전차, 수영, 근대5종, 배구, 농구, 배드민턴, 레슬링, 육상 등 거의 모든 종목의 선수들은 추석 당일(13일)만 제외하곤 각각 자신들의 훈련 장소에서 금빛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 막판 훈련에 매진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사전경기에 나서는 체조 선수들은 추석 당일에도 쉴 틈도 없이 훈련에 임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도 추석 연휴기간 내내 이뤄졌다.

도 체육회 임원들은 군산과 익산, 전주, 완주 등 선수들의 훈련장소를 돌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필승을 외쳤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 선수들은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성과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정말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며 "선수들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사전경기에 나서는 체조 선수들은 추석 당일에도 쉴 틈도 없이 훈련에 임했다.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또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4일부터 10일

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NH농협 순창군지부 도복벼 세우기 농가 일손돕기 실시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장경민)에서는 최근 발생한 태풍으로 적성면 소재 피해 농가를 찾아 군부대(대대장 권혁창) 장병포함 총 25여명 인력으로 도복벼(약 300여평) 세우기 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농가에서는 빨리 벼를 세우기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복구계획을 수립, 인근부대 장병들과 합동으로 긴급 일손돕기를 실시하게 됐다.

장경민 지부장은 "향후에도 태풍 등 농작물 재해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복구와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적극 지원해 재해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가을 수확철 적기 수확을 통한 품질향상과 재갈 받기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원원 기자

남원경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최근 초록마루에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남원시의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부서별 단편적 판단에 의해 경찰조치 및 정책수립 시에 현장조치 미흡이나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남원 여고앞 여성안심 CCTV 3대와 서남대 원룸주변 가로등을 설치할 결정하였으며, 당직 신고시간 처리와 관련 기능별 범죄예방 계획을 공유, 남원기관·단체 등 공동체회의 범사회적 파트너십을 구성을 논의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더욱더 살기 좋은 남원,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송동의용소방대 나눔 동참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 송동남·여성의용소방대가 지난 추석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송동면복지센터에 굴비세트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에 동참해 칭송받고 있다.



이번 나눔에 함께한 강병우 송동의용소방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송동의용소방대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해 지난 7월~8월 2달간 주택용 소방시설 100여 개를 설치 화재예방활동에 앞장서며 모범이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추석 특별 교통근무 귀성객 안전 총력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추석을 맞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 편의제공 및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교통관리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남원 5일장을 찾아 협력단체와 합동근무에 나서 주변 교통소통 관리에 나섰다. 11일에는 남원을 찾는 귀성객을 상대로 남원IC에서 유관기관, 협력단체 70여명과 합동 교통캠페인으로 안전한 귀향·귀경길 홍보를 진행했다.

한편 함현배 서장은 "짧은 추석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교통 불편이나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교통치안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HATCH 라운지' 개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LINC+사업단은 최근 문화관광대학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공간인 'HATCH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15일 밝혔다.

'HATCH 라운지'는 산학협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개방형 4IR 교육체험' 공간으로 스타트업 도서관을 시작으로 공과대학, 의과대학, 문화융합대학, 인문대학에 이어 문화관광대학에도 구축됐다.

지역혁신관 1층에 구축된 문화관광대학 HATCH 라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산학협력을 인문학 분야로 확산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실험, 휴미, 힐링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문화관광대학 HATCH 라운지는 기존에 구성된 HATCH 스테이션과 LINC+실습 공간 등과 통합·융합되어 학생들이 창의 학습, 아이디어 도출 및 설계, 모델 제작, 기획·마케팅 등의 활동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윈스톱 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대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전주대는 산학교육혁신 브랜드를 'HATCH'로 정립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북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 이하 지원센터)는 최근 장수군 계북면의 태풍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장수군을 대표하는 사과농가를 찾은 지원센터 직원 10여명은 태풍의 영향으로 쓰러진 과수를 세우고, 낙과와 잔해물을 줍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태풍피해로 삼심이 크지만 일손돕기를 하는 직원들이 내일처럼 두팔 걷고 도와줘서 큰 힘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직원들을 이끌고 일손돕기에 참여한 박승수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향후에도 전북지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써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ijmaeil.com에서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